



삼양식품
불닭 열풍 이어갈
‘맵’ 시리즈 선배
L1



Life

콜마그룹
분쟁 속
계열사 재편
L2



요양시설 짓고 보육환경 조성... 요람서 무덤까지 ‘따뜻한 동행’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하나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인 인천 부평구의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앞장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은행, 증권, 캐피탈 자본 출연
공익재단 설립, 사회문제 해결 나서

고령층 위한 ‘하나케어센터’ 구축
매년 10억 지원... 본인부담금 낮춰
고려대 산학협력 맺고 간호·진료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이란 미션을 갖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구축하고,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도 마련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고,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5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가 줄며 돌봄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옛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 하나캐피탈이 자본을 공동 출연해 설립됐다. 제1호 노인전문요양시설 ‘남양주 하나케어센터’와 제1호 영유아보육시설 ‘신길동 하나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활동은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후원과 현재 100호 어린이집 설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 ‘하나케어센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지난 2009년 은행권 최초로 경기 남양주 수동면에 하나케

어센터를 구축했다. 하나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층이 머무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특히 하나케어센터는 대지 면적이 1만 5126㎡에 달해,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개별 호실의 넓이가 도심형 요양원의 두배에 가깝다. 통상 전용 13㎡ 정도인 1인실(7실)은 최대 26㎡이다. 2인실(30실)이나 4인실(8실)도 크게 지었다. 해외나 지방에서 찾아온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2채의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센터 상주직원도 많다. 법적인력은 계약의사 1명과 요양보호사 47명을 포함한 총 64명이지만, 하나케어센터는 계약의사 3명과 요양보호사 59명을 포함한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어르신(99명)만큼 센터 상주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경기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이 연계진료를 한다.



하나케어센터 어르신 활동사진.

/하나케어센터

영유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 100개 건립
보육 사각지대에 안정적 환경 제공
교사·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 성과

하나금융공익재단은 매년 하나케어센터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1명당 약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요양급여는 요양등급에 따라 월 237만~271만원으로,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원을 비용을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은 48만~54만원(식대 등 비급여 제외)이다. 1인실은 상급침실료 본인부담금이 1일 6만5000원, 2인실은 1일 3만5000원이다.

◆“일 가정 양립”...100호 어린이집 건립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했다.

재단은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에 구립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에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을 설립했다.

하나금융관계자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아이를 맡기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해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1500억원 규모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국 곳곳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농어촌, 섬마을 등 보육 취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등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90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를 완공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촌 지역과 장애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사를 채용하면서 고용창출 성과도 얻고, 부모의 양육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시간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365일형은 만1세부터 만6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또는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금액은 1시간당 3000원, 1일 5만원이다. 주말 공휴일형은 만1세~만6세 미취학아동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다. 이용금액은 1시간당 3000원이다. 돌봄어린이집은 총 50곳으로 전국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BO 홈런더비 출전자 8명 ‘100% 팬 투표’로 뽑는다
▲사우디 알힐랄, 클럽월드컵 이번 연출...EPL 맨시티 꺾고 8강행
/사진 뉴스스

▲이정후,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타율 0.240 하락
▲KBO 떠나 예능 택한 이종범 “힘든 시기 보내는 후배들 위한 선택”

▲웜블던 3연패 노리는 알카라스, 1회전부터 폴셋 끝에 진땀송
▲삼성 김영웅, 비상계엄 옹호 영상에 ‘좋아요’ 눌러 논란